

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

31. 하얀 멧돼지 선술집 (Osteria Del Cinghiale Bianco) 1

이제 정말 저녁을 먹으러 가야한다. 이리저리 돌아 다니느라 배가 고팠다. 우리가 향한 곳은 '오스테리아 델 칭기알레 비앙코'. 숙소 근처에 있어서 보아 두었다. 자그만 규모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니 손님들이 많았고, 검색해보니 피렌체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맛집이었다. '오스테리아'는 이탈리아 정통 선술집을 말한다. 옛날에는 주로 와인을 팔면서 안주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서민적인 식당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현대식 레스토랑 형식을 갖춘다. 굳이 '오스테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 '칭기알레 비앙코'는 '하얀 멧돼지'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들으면 어찌 사냥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선술집에 모여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는 정경이 떠올랐다.

'하얀 멧돼지 선술집'의 주소는 Borgo San Jacopo 43r, 50125. 우리 숙소와는 그야말로 옆이되면 코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우리는 피렌체에 머무르는 동안 한 번도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한 적이 없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기본 내키는대로, 그때그때 발길이 닿는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고, 하도 레스토랑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우리 밥 먹을 곳 쯤이야 없으랴' 하는 배짱도 생겼다. 무엇보다 미술관과 성당 등을 스케줄에 맞춰 강행군하며 둘러보다 보니 식사까지 예약 시간에 맞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도착했다. 중세 벽돌 건물이 양쪽으로 꼭 들어찬 어둡고 작은 골목이다. 네모난 대문에 역시 네모난 나무 간판이 걸려 있다. 하얀 글자로 '오스테리아 델 칭기알레 비앙코'라고 써 있다. 안에는 손님들이 빠곡하게 앉아 있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덕하게 생긴 중년 이탈리아 웨이터가 '부오나 세라!' 하면서 맞아 주었다. "예약없이 왔는데요. 두 명이에요. 저녁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식당 안을 쓱 둘러 보더니 이마를 문지르면서 말했다. "마담, 죄송합니다만 현재 만석입니다." 별로 실망감은 들지 않고 그저 빨리 딴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웨이터가 불쑥 말한다. "하지만! R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

았다. 그는 얼굴 한 가득 웃음을 지으면서 두 팔을 크게 벌렸다. "두 분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숙녀분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테이블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탈리아 스타일 립 서비스이다.

우리는 금새 벽쪽으로 난 2인용 테이블로 안내 받았다. 고맙다고 하자 웨이터는 눈을 찡긐 하면서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어둡한 실내에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이층도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 위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는 아치형 공간이 있는데 박제된 하얀 멧돼지 세 마리가 장식되어 있었다. 싱글빙글하는 웨이터 한 명이 또 나타났다. 영어는 유창하지 않지만 만면에 웃음을 띄고 가끔 웅크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다. 우리는 키안티 와인을 반 카라프 시키고 (엄청나게 맛있는 와인이었다), 카프레제 샐러드, 감자를 곁들인 로스트 치킨 (트라토리아 아니타에서 먹은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또 주문했다), 그리고 트러플 (Truffle) 파스타를 주문했다.

우리 옆에는 미국에서 신혼여행 온 것 같은 젊은 커플이 비스테카 알라 플로렌티나를 먹고 있었다. 체격이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의 커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스테이크를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먹고 있었다. 우리는 내일 피렌체 송별 기념으로 먹기로 했으므로 옆눈으로 보기만 했다.

와인을 마시면서 카프레제 샐러드를 맛있게 먹고 나니 트러플 파스타가 나왔다. 프와그라, 캐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송로버섯 트러플. 송로버섯은 재배할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나는 것도 일 년 중 정해진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어서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산이 유명해서 ROI 피렌체에 왔으니 꼭 오리지널 트러플 맛을 보아야 한다며 주문한 것이다. 알 단테로 삶아 버터로만 간을 맞춘 담백한 파스타 위에 트러플을 얇게 깔아 수북하게 얹었다. 한 번 맛을 보니 강렬한 향이 코를 찌러서 움찔했다. 가만히 씹어 보니 아작하게 살갗거린다. 알싸하고, 맵고, 곰팡이 같기도 하고, 비 온 후 숲 향기 같기도 하고, 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무언가 매우 귀한 보물같은 허용할 수 없는 맛이였다. R은 몇 입 먹어 보다가 맛과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다며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 버리고 치킨 접시를 끌어 당겼다. 평소 나는 약조나 야채의 쓴맛을 좋아하는 이상한 미각을 가져서 그 매캐한 풍미의 트러플이 몹시 맛있게 느껴졌다. 한 접시를 싹삭 비우면서 '이 트러플은 호불호가 극명한 먹을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흥이 식힌 것을 좋아하는 입맛이 이와 비슷한 경우 일지도 모른다.

메디케어 보험 **처방약 보험**

- 65세가 되셔서 Medicare Part A & B를 받으신 분들(신규 가입자)
- Medicare에서 커버 못하는 20%의 혜택을 위한 보조보험 (Supplemental 보험)
- 현재 가지고 계신 HMO가 불편하신 분
- 타주나 해외에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오신 분
- 직장보험이 끝나서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하신 분
- 메디칼에서 중단된 BENEFIT을 계속 원하시는 분
- 메디칼 메디케어를 모두 가지고 계신데 자동 HMO에 가입되신 분
- Part D (약보험)

한은주
(Michelle Han)
CA LIC #0G0715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714)906-4475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유니티 • 종합보험

Since 1986 ASIANA AIRLINES

파이오니아 여행사

모든 항공권, 모든 관광일정을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믿고 문의 하세요!

2019년 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9박10일

1인당 **\$1799** +항공료 별도

출발 2월 25일 (금요일 12월 마감)

2019년 가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9박10일

1인당 **\$1799** +항공료 별도

출발 9월 16일 (내년 5월 마감)

* 30명 기준 가격입니다.

LA 일일관광 수시출발 (2인이상) \$99

매주토요일 LA,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일일관광 9시 정시출발

★서울왕복★ 가장 싼 티켓

모든 항공사 공인 대리점 www.lapioneertour.com

Tel: (562)403-3360
E-mail: pioneertv@yahoo.com
17510 Pioneer Bl. Artesia, CA 90701 (Pioneer / 맥도널드 건너편)

통증/한방미용 전문 힐링 한의원 J Lee Acupuncture

모든 통증 치료 전문
TMJ, 어깨, 목, 심한통증, 요통, 생리통, 손발 저림, 위장병, 무릎통증, 두통, 관절염, 불면증, 갱년기 장애, 화병, 우울증 외

완벽한 바디라인 완성
다이어트 걱정은 끝

불임치료 전문
행복한 아이를 만나세요

오픈기념 이벤트

발디톡스

~~\$60~~ → **\$20**

(첫 방문고객에 한함 1회)

4대 가문을 이어온 한의사 집안

8체질에 의한 각종 보약, 전통 한방침

한방미용 : V라인 / 주름제거 / 리프팅 및 얼굴 피부 개선 / 여드름 치료 / 기미치료

치료지압 전문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이 치료합니다

좌골 신경통, 근육통 완화 / 스트레스, 전신피로감 해소

- 전신 경락 마사지
- 림프 순환 마사지
- 추나요법

*전신성 염증질환 치료, 개선

스킨케어

- 피부타입 / 연령별 맞춤관리(중성, 지성, 건성, 복합)
- 미백관리 · 물광피부 케어 · 리프팅 관리
- 여드름 특수케어(박테리아, 피지, 여드름 진정)
- 남성 피부관리(지성피부, 여드름 집중 관리)

오바마 케어 · 블르셀드 · 블루크로스 · 씨그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 에트나 · 카이저

-각종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714.752.6009 7455 La Palma Ave. Buena Park, CA 90620